

#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

The Meaning of Old Age as Portrayed in the Sports Variety Show the <Strongest Baseball>

박소영\*

**국문요약**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한번 선수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노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스포츠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은퇴 선수들의 열망과 노력을 보여주며 현대 사회에서 노년의 욕망을 확인하고 그들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게 한다. 은퇴 선수는 실제로는 청/장년 세대이지만, 야구선수로서의 신체적 노화를 체험하였으며 은퇴를 일찍 경험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자신보다 어리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만 미숙한 청년인 아마추어 선수와 진지하게 승부를 겨루며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그들과 소통한다. 7할 승률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 팀으로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은퇴 후의 노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아마추어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아마추어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존재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어** 최강야구, 스포츠, 노년, 은퇴, 노인 정체성, 은퇴선수, 스포츠예능

- 차례**
- 서론: 은퇴선수와 노년의 교집합
  - 증명을 위한 승부: 스포츠 영웅의 귀환
  - 야구라는 스포츠: 청춘과 노년의 교차로
  - 결론: 사라진 노병은 어디로 갔을까

상업화를 촉진했고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를 성장시켰다.<sup>1</sup> 놀이를 통한 재미의 창출을 본질로 삼는 예능프로그램<sup>2</sup>도 미디어 친화적인 콘텐츠인 스포츠를 놓치지 않고 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간단하게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진들이 하는 족구나 탁구와 같은 미니게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까지 스포츠는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 1. 서론: 은퇴선수와 노년의 교집합

스포츠는 안전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예측 불가능성이 라는 흥미를 제공하고 인간이 가진 공격성과 모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인간은 스포츠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관람하게 되었다. 스포츠에 대한 인류의 높은 관심과 미디어의 발전은 스포츠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예능형, 중계형, 두 가지 형태의 융합형이 그것이다. 일반예능형이 <런닝맨>(SBS), <무한도전>(MBC), <1

\*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정준영,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 2020, 46~58쪽.

2 이동규, 『예능의 비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22~23쪽.

박 2일)(KBS2)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중계형은 <최강야구>(JTBC), <골때리는 그녀들>(SBS)과 같이 스포츠 경기의 재미를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삼은 중계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예능중계융합형은 <우리동네 예체능>(KBS2)처럼 스포츠를 활용하지만, 스타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경기(준비) 중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에서 재미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sup>3</sup>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중계형, 융합형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직/현직의 스포츠 선수들은 낯선 스포츠를 체험하는 방송인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출연하거나 혹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방송인으로서 출연한다. 이때 프로그램은 야구(<최강야구>)를 비롯해 축구(<골때리는 그녀들>, <몽치면 찬다>(JTBC)) 등의 대중적인 스포츠부터 씨름(<씨름의 희열>(KBS2)), 당구(<노매너 스포츠 동네 당구>(SPOTV2)) 등의 비주류의 다양한 종목을 다룬다. 심지어 <우리동네 예체능>과 같이 회마다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고 겨루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스타는 다른 방송인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운동수행 능력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의외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생산해 낸다.<sup>4</sup>

그들은 스포츠 예능뿐만 아니라 관찰 예능이라고 불리는 리얼리티 예능이나 토크쇼와 같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운동선수는 기존 연예인이나 방송인과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운동선수로서 익숙했던 스포츠 스타에 대한 시

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기간 운동선수로 활동하며 쌓아 올린 대중적 인지도와 한 분야에서 정점에 달했던 성취, 운동선수가 가진 특유의 승부욕 등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sup>5</sup> 이러한 운동선수들은 일회적으로 출연해 호평을 받게 되면 꾸준히 방송활동을 하며 강호동, 서장훈, 안정환과 같이 운동선수 출신의 예능인으로 자리 잡고 이후 방송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스포츠 선수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가 매우 빠르고 그로 인해 두 번째 직업을 통한 재사회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젊은 시기 은퇴한 스포츠 선수는 선수 생활 동안 축적한 선수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거나 혹은 스포츠와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선수 출신의 방송인은 이러한 두 직업의 중간 지대에서 자신의 직업을 창출해 낸 것이라 하겠다.

운동선수의 은퇴란 스포츠 경력의 마감으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탈퇴이며 노화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장 뛰어난 운동수행 능력을 경기마다 겨루며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프로 스포츠의 영역에서 노쇠한 선수는 산업체에서 생산력이 떨어져 교체되는 60~65세의 늙은 노동자의 위치와 다르지 않다. 물론 실제 노년의 나이<sup>6</sup>에 은퇴하는 노동자와 20~30대에 은퇴하는 운동선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축적한 부의 크기도 은퇴 후 얻을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학적 관점에서의 은퇴가 운동선수의 은퇴와

3 본 분류는 조미술의 연구를 토대로 용어를 재정리한 것이다. 조미술은 일반예능형을 '일반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 중계형을 '실제 스포츠 경기의 도입 형태', 예능중계융합형을 '두 가지 형태의 융합형'으로 명명하여 구분했다. 조미술, 「실제 스포츠 경기를 도입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 연구」, 『문화영토연구』 5-1,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 2024, 143~15쪽.

4 박소영, 「TV오락프로그램의 스포츠스타 '미디어 광대'되기」,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5, 13~25쪽.

5 이준호·이영주, 「스포츠스타의 스포츠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프로그램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제작진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22-1, 한국소통학회, 2003, 272쪽.

6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 결정되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은 정부로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24년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은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뀌야」, 『조선일보』, 2024.06.18.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sup>7</sup> 운동선수의 은퇴는 노동자의 은퇴와 같이 죽음과 가깝거나 혹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직업에서의 은퇴는 개인의 정체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은퇴는 노인들이 자신을 노년기로 인식하는 사건 중 하나이다. 은퇴의 경험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에 노인의 정체성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sup>8</sup> 운동선수로서의 은퇴도 그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종료되며 다른 정체성으로 전환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운동선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년에 반드시 체험하게 될 인생의 거대한 사건인 ‘은퇴’를 남들보다 젊은 시기에 빠르게 체험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새로운 직업을 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기회를 일찍 얻지만 말이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해서 JTBC의 <최강야구>의 사회적 의미를 ‘노년’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JTBC의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 선수끼리 모여 ‘최강몬스터즈’라는 팀을 이루어 고등학교 야구팀을 비롯해 대학교 야구팀, 독립리그 야구단, 프로야구 2군의 선수들과 겨루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몬스터즈가 치르는 전체 30경기에서 승률 7할을 유지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는 점이다.<sup>9</sup> 사실 이 특징은 최강야구의 장시원 피디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가까웠다. 프로그램의 첫 화에서 즉흥적으로 꺼낸 말이었고, 출연진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제작진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기 때문이다.<sup>10</sup> 심지어 10경기를 기준으로 7

할 승률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팀 내 선수를 방출한다는 조건도 함께 알렸다.

이러한 피디의 프로그램 공약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재미가 아닌 승리에, 예능보다는 야구 경기의 재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은퇴선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야구선수가 되었지만 경기의 승패에 따라 다시 야구선수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로 인해 7할이라는 목표는 출연진들의 절박함과 승리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이 몬스터즈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형성하고 출연진이 야구선수로서의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둔 채 경기에 매진하는 상황으로 만든다.

본 논문이 최강야구를 통해 노년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상 노년은 60세 이후의 삶으로 인식되며 사회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청년에서 중장년층에 속하는 선수들이 출연하는 최강야구는 노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야구선수라는 삶으로 볼 때 그들은 야구선수로서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고, 또한 더 이상 야구선수가 될 수 없는 퇴직한 야구선수이다. 인생 주기로 보았을 때는 노년이라 할 수 없으나 야구선수라는 직업으로 보았을 때는 노년인 셈이다. 야구선수로서 삶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 경로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야구선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강야구>는 더 이상 야구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다시 선수로 등장시켰다. 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전성기 시절과 같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리고 건강하며 재빠른 야구 선수들과 맞서 경기를 치르고 승률 7할이라는 성적을 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7할 실패 시 프로그램 폐지라는 선언은 그

7 서진교,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11~18쪽.

8 김지혜·조성남,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2, 이화여자대학교, 2004, 280쪽.

9 「『최강야구』 야구에 빠진 남자들 리얼리티(종합)」, 『뉴스토크』, 2022. 05.03.

10 정용검은 아나운서 이금희의 유튜브 채널 '마이금희'에 출연하여 인터뷰

를 했는데, 이때 첫 촬영장에 갔을 때 7할을 못하면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최강야구 때문에 프리랜서 선언한 용검언니?! 최강야구셀2!!!!」 @친절한 금희씨 H/L, 마이금희, 2023.6.5.

들에게 있어 야구선수의 삶이 종말, 일종의 야구선수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출연하는 은퇴선수는 죽음을 앞둔 노년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얻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본고는 <최강야구>를 야구를 통해 청/장년의 몸으로 노년을 체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노년의 마지막인 죽음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연장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세대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와 은퇴한 노년을 연상하게 하는 청/장년 세대, 그리고 실제 노년 세대가 하나의 팀으로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의 노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최강야구>가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재미는 스포츠로서의 야구가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강야구>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수용자들의 반응을 통한 흥행 요인을 찾아내거나<sup>11</sup> 프로그램의 브랜드 전략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sup>12</sup> 본고는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노년과 청년이라는 세대적 관점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재미와 감동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증명을 위한 승부: 스포츠 영웅의 귀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실제 스포츠 선수들이 출연진이 되어 꾸준히 등장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가장 주목해 볼만한 것은 <최강야구> 이전에

제작되었던 <몽치면 찬다>이다. <몽치면 찬다>는 축구선수인 안정환이 '몽치면 찬다FC'의 감독이 되고, 은퇴한 각종 스포츠 선수가 축구선수가 되어 국내 다양한 아마추어 조기축구팀과 대결하여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 예능이다. 즉 <몽치면 찬다>의 출연 선수들은 축구를 처음 경험해보는 초보자이며, 유일한 축구선수인 안정환은 그들을 이끄는 초보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축구선수/감독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도달했던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던 <골 때리는 그녀들> 역시 다양한 여성 연예인들이 각자의 공통점을 토대로 팀을 이루어 축구를 하고, 팀의 우승을 목표로 치열하게 대결하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역량으로 방송활동을 해오던 여성 연예인들이 팀 스포츠인 축구를 하며 아마추어 축구선수로서 성장하고 서로 간에 끈끈한 우정을 쌓아 올리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그 과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성 연예인들의 승부는 스포츠 분야에서 비주류로 취급되는 여성을 스포츠의 주체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sup>13</sup>

이처럼 중계형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은 은퇴한 프로 운동선수부터 연예인들까지 다양한 출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를 배우며 성장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처음의 어설피고 미숙했던 출연자들은 각자가 가진 승부욕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느낀다. 이는 <최강야구>와 가장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있었던 MBN의 <뽀 투 더 그라운드>도 마찬가지이다. <뽀 투 더 그라운드> 역시 은퇴한 전직 야구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아마추어 선수들과 겨루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뽀 투 더 그라운드>는 <그림 1>처럼 은퇴한 야구 선수의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먼저 주목한다. 체력 테스트와 신체 훈련을 힘들어하는 은퇴

11 이재문·이용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성공 요인 분석 연구: 최강야구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5-2, 한국스포츠과학원, 2024.

12 최명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최강야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22-1, 한국스포츠학회, 2024.

13 김은진, 「미디어 속 여성 스포츠의 서사와 재현」, 『여성학연구』 32-1, 부산대여성학연구소, 2022, 42~43쪽 참조.



〈그림 1〉〈뺑 투 더 그라운드〉1화 훈련 모습



〈그림 2〉〈최강야구〉1화 훈련 모습

선수의 코믹한 모습은, 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면은 이후 점차 실력을 되찾는 그들의 변화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이 예능적 요소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에 비하면 〈최강야구〉는 성장보다는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타자라 불렸던 이승엽의 감독 도전은 제외하고는, 〈최강야구〉의 출연자는 〈뺑 투 더 그라운드〉와 같이 프로구단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대부분 오랜 기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선수들이다. 그러나 7할 승률을 생존조건으로 내걸고 경쟁한다는 것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예능적 재미보다는 야구 경기 중계와 승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차이로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축구선수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몽치면 찬다〉와도 다르다.

〈최강야구〉는 고등학교 야구팀과의 승부를 통해 그들이 왜 프로에서 활동한 레전드 선수인지를 증명해 내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뺑 투 더 그라운드〉와 같이 선수들의 시합 준비 과정에 주목하지 않는다. 〈뺑 투 더 그라운드〉처럼 그들이 얼마나 노쇠해졌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야구선수임을 강조한다. 〈그림 2〉와 같이 시합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출연자들의 연습 과정은 매우 진지하고 전문적이며, 유튜브를 통해 보

여주는 훈련 모습 또한 그들의 어설픈 신체 수행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더 나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로서의 진지한 모습을 강조하며 그들이 현역 야구선수와 다르지 않은 훈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최강야구〉1화 덕수고 설명 영상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선수들과 승부를 겨루어야 할 고교 야구 선수들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최강몬스터즈와 견줄만한 실력을 갖춘 강력한 팀으로 묘사한다(〈그림 3〉). 고등학교(혹은 대학교)의 야구부 선수들은 프로에 아직 입단하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이지만 30~40대의 은퇴한 야구선수에 비해 신체 능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강몬스터즈의 선수만큼의 경험과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승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프로 출신의 선수들과 신체능력이 뛰어나지만 경험이 적고 미숙한 아마추어 선수의 대결은 시청자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는 있어도 긴장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10화 충암고의 윤영철(현재 기아 타이거즈 투수)이나 16화 서울고의 김서현(현재 한화 이글스 투수)과 같이 출연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심지어 좌절감마저 경험하게 하는 뛰어난 실력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이고 일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sup>14</sup>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sup>14</sup> 물론 최강몬스터즈와 아마추어팀의 경기가 최강몬스터즈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최강몬스터즈의 경기 운영 정보는

관심을 끌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대결 상대를 강력한 팀으로 묘사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상대 팀의 자신만만한 인터뷰를 포함하여 팀의 우승 경력이나 수상 경력,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과장 섞인 상찬은 프로그램의 진행상 필요했던 것이다.<sup>15</sup>

강력한 팀으로 묘사되는 아마추어팀과 대결해야 하는 최강몬스터즈는 매 경기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우승했을 때의 기쁨뿐만 아니라 패배 후 이어지는 후회와 분함 역시 방송은 최대한 날 것으로 보여주려 한다. 콜드패 후 팀에 충원된 선수 오주원의 “초상집 같았다”(12화, 2022.08.22)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현재 치르는 이 승부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그들이 방송이 아니라 야구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그들의 강한 승부욕은 운동선수로서의 승부욕이면서도 자기 증명의 욕망이기도 하다. 야구선수로서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던 출연자들은 비록 은퇴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야구선수였다는 사실을 넘어 <최강야구>에서 승부를 겨루는 지금의 순간 자신이 여전히 야구선수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자신이 뛰어난 야구선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승해야 하며, 야구선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 경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욕망은 <최강야구>의 동력이 된다.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그들에게 방송인으로서의 재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시원 PD는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인 “Win or Nothing”처럼 오직 경기의 승리를 요구한다. 프로그램 중간에 등장하는 그는 PD이지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책임자가 아닌 관중으로서 경기를 지켜보고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에 아쉬워한다. 104화에서

축적되지만 아마추어팀의 경기 운영 정보는 최강몬스터즈보다 접근하기 어렵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외경기의 특성상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여름 경기에 은퇴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역시 신체적으로 부담이 커서 그들에게 극복해야 할 요소가 된다.

15 물론 이러한 부분은 시즌2부터 줄어들어 팀의 우승 경력과 대표적인 선수의 설명 등으로 조정되었다.

하이해진 선수들에게 경기만 잘 치러달라고 소리높여 요구하듯, <최강야구>의 재미는 출연자들의 코믹한 모습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구선수로서 경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중들이 느낄 긴장감과 쾌감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출연자들은 방송인이 아닌 승부에 진지하게 임하는 야구선수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에 큰 애착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장원삼은 <최강야구>에 함께 출연하는 정근우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두 사람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고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매주 야구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해왔던, 젊은 시절 ‘황금세대에 같이 국가대표를 했던 형, 동생들과 같이 연습하고 게임을 하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sup>16</sup>는 그들의 공감은 <최강야구>를 통해 출연자들이 야구선수로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즌3에 합류한 더스틴 니퍼트 역시 야구 코치로서 하는 캐치볼이 아닌 야구를 하고 싶으며 야구팀에 소속되어 팀원으로 있고 싶어 지원했다는 지원동기를 밝히기도 했다.<sup>17</sup> 더스틴 니퍼트의 인터뷰는 은퇴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년의 욕망과 일치한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단절의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체성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자신이 했던 직업,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애 특정 기간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동료들 통해 지속을 보증받는다. 그로 인해 정체성이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며 이를 위해 노인은 은퇴 이전의 과거 경험들이 단절

16 「EP 11-4. 야구를 위해서 테스트를 수락했던 사연은?」, 정근우의 야구인생, 2024.06.13. <https://www.youtube.com/watch?v=kBaDPbXvJc>

17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어요. 경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내가 에이스 투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가족처럼 팀원들을 사랑해요. 야구는 개인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는 각자가 모여 한 팀이 되는 것, 그게 제일 그리워요.” <최강야구> 78화, 2024.04.22.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sup>18</sup> <최강야구>에서도 여전히 야구 선수이고 싶은 선수들의 욕망은 은퇴 후 단절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야구선수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렇기에 과거 함께 했던 동료들과 팀 스포츠를 통해 선수로서 관계 맺으며 더욱 간절하게 야구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최강야구>의 재미와 감동은 은퇴한 뒤 종료된 야구선수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연자들의 고군분투 속에서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승률 7할 유지를 위한 간절함이 운동선수들의 강한 승부욕과 함께 진정성 있게 드러나게 되며 은퇴한 스포츠 영웅은 다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통해 현존하는 스포츠 영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두산 베어스의 선수였던 유희관이 두산 베어스 2군과의 직관 경기에서 마운드에 서고(33화, 2023.02.06),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였던 이대호가 롯데 자이언츠 2군과의 직관 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장면(92화, 2024.07.29)에서 관중과 시청자들이 감동한 이유도 그것이다. 경기장에서 사라진 스포츠 영웅이 부활하여 돌아왔기 때문이다.

스포츠 영웅이 “사회와 문화의 거울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역할에 의해 상징화된 신비적이고 실제적인, 살아 있는 혹은 죽은 사람”이라면<sup>19</sup> <최강야구>에서 치열한 승부를 겨루고 있는 그들은 은퇴 후 노년(혹은 장년)의 거울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은퇴 이후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은퇴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며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지어 그러한 활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믿음과 의지를 제공하는 영웅적 존재가 된다.

이때 2대 감독으로 출연하고 있는 김성근의 말은 의미

심장하다. 31화에서 “돈 받으면 모두 프로다”라는 그의 말은, 계속된 연패 속에서 ‘프로 출신’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꾸념하는 출연자들에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은퇴선수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려는 시도가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한다. 여전히 프로 선수로 그들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프로 야구선수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야구라는 스포츠: 청춘과 노년의 교차로

스포츠는 신체 능력과 운동수행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는 행위인 만큼 청년 중심의 문화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노년이 될수록 가능한 스포츠의 범위는 좁아지고, 활동마저 수행보다는 관람으로 제한된다. 은퇴선수로 구성된 최강몬스터즈에 젊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강야구> 시즌 1에서부터 가장 체력소모가 큰 유격수와 포수는 젊은 20대 선수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즌 3까지 계속해서 출연 중인 최수현을 비롯해 시즌 1의 독립리그 선수 황경빈, 건국대 야구부의 류현인, 시즌 2의 독립리그 선수 황영목, 성균관대 야구부의 원성준, 시즌 3의 단국대 야구부 임상우, 중앙대 야구부 윤상혁 등은 모두 유격수나 외야수를 맡고 있다. 포수 역시 시즌 1에서는 동의대 야구부의 윤준호가 주전 포수였고, 시즌 3에서는 중앙대 야구부의 고대한이 주전 포수로 활약하지는 못하지만 포수로 발탁되어 출연 중이다. 현재 주전 포수는 은퇴선수인 박재욱이 맡고 있지만 그 역시 95년생으로 청년 세대에 포함되고, 시즌 1 초반에 주전 포수였던 프로 출신의 이흥구도 90년생으로 다른 은퇴선수들에 비해 어린 편이다. 그 외에도 부상이 잦고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투수진에서도 불펜투수로서 대학리그 선수들(시즌 2의 정현수(송원대), 시즌 3의 이용현(성균관대) 등)이 등장하고 있다.

18 김지혜·조성남, 앞의 논문, 291~292쪽 참조.

19 Theodorson, G. A. & Theodorson, A. G., *Modern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Thomas Y. Crowell, 1969. 구창모, 「현대사회와 스포츠 영웅: 스포츠 영웅의 사회학적 관점」,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9,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998, 45~46쪽 재인용.

은퇴선수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청년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최강몬스터즈의 구성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청춘과 노년이 교차하는 교집합의 영역을 만들고 세대 간의 건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의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정점을 경험하거나 혹은 프로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버텨왔던 은퇴선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이러한 배움이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최강몬스터즈팀의 중심이 되는 멤버는 은퇴한 선배 선수들이지만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들의 강력한 조력자이자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다. 24화(2022.12.05)에서 포수 윤준호와 유격수 류현인, 외야수 최수현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자 차라리 경기를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는 정근우의 모습은 세대 간의 역전된 관계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동시에 젊은 아마추어 선수가 이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시즌 3에서 임상우의 경우 활약이 거듭되며 호칭이 ‘임스타’에서 ‘임선생님’까지 바뀌는 과정(95화, 2024.08.19)은 의외의 호칭을 통한 웃음 생산과 함께 아마추어 선수가 노년의 선수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활약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최강몬스터즈에서 은퇴선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선수로 활동한 신인선수들의 성장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세대 간의 건강한 소통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는 신인 드래프트의 과정에서 프로 선수로 선발되는 최강몬스터즈 출신의 신인들을 통해 증명된다. 최강야구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신인배출”이라는 점은<sup>20</sup> 시청자들에게 시즌마다 새로운 신인을

20 이재문, 이영건은 최강야구를 주제로 네이버, 다음, 구글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범주화된 단어군집은 성공요인(예능 프로그램, 월요일, 독립리그, OTT 플랫폼), 이벤트 및 마케팅(최강야구 X캘리, 최강야구X엄마사랑, 응원가, 유티폼, 직관데이), 신인배출, 감성, 스타마케팅으로 정리되었다. 이때 신인 배출에서는 신인드래프트, 황영목, 원성준, 정현수가 추출되었다. 이재문·이용건, 앞의 논문, 255~258

발견하게 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이 최강야구의 또 다른 서사의 축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춘의 성장이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기성세대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퇴 이전의 경험이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강야구〉는 방출 시스템이 있는데, 은퇴선수의 경우 직장 문제로 프로그램 출연을 포기했을 때 방출되었다는 표현을 쓰고<sup>21</sup>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에는 프로 선수로 야구단에 입단했을 때 방출되었다고 표현한다.<sup>22</sup> 〈최강야구〉는 직관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회에 한 경기씩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경기 준비 훈련은 매우 짧게 처리되거나 방영되지 않는다. 심지어 시즌3에 와서는 승리 후 MVP 선정마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최대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강야구〉가 경기 외에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신인 드래프트와 최강야구 드래프트이다. 최강야구 드래프트는 한 시즌을 함께 할 선수를 차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최강몬스터즈의 선수가 될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호감도를 높이고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절차이다. 그에 비해 신인 드래프트는 프로야구팀에서 고교/대학교/독립리그 선수들 중에서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야구계의 행사인데, 〈최강야구〉는 이때 지명을 기다리는 최강몬스터즈 소속의 아마추어 선수들에 주목한다.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 중 프로로 지명되는 선수는 단 110명뿐이며, 지명되지 않은

#### 쪽 참조.

21 공식적으로 방출된 선수는 이승엽과 오주원인데,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방출되었고 투수 오주원은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코치가 되어 방출되었다.

22 최강몬스터즈의 선수로 활동했던 아마추어 선수 중 방출된 선수는 시즌1에서는 한경빈(한화 이글스), 윤준호(두산 베어스), 류현인(KT 위즈), 박찬희(NC 다이노스), 2023년 시즌2에서는 정현수(롯데 자이언츠), 황영목(한화 이글스), 고영우·원성준(키움 히어로즈), 김민주(기아 타이거즈), 2024년 시즌3에서는 유태웅(롯데 자이언츠)이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탈락하고 육성선수로 차출된 선수들도 본 목록에 포함하였다. 특히 시즌3에서 문교원, 고대한, 이용현, 윤상혁은 드래프트에서 선택되지 않았고 최수현과 임상우는 드래프트 대상이 아니다.

고교 선수는 대학교에 진학해 야구를 계속하거나 포기해야 하고, 지명되지 않은 대학교 선수는 더 열악한 독립리그로 가거나 혹은 야구선수를 포기해야 한다. <최강야구>의 아마추어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아마추어 선수를 통해 간접한 청춘의 성공과 좌절을 보여준다. 성공의 기쁨과 좌절의 눈물을 보이는 청춘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취업이 어려워진 청춘들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한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은퇴선수들과 함께 바라보는 시청자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목격하며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최강야구>의 성장의 서사는 청년세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승엽은 감독으로서 성장해야 했고, 등장과 함께 폭투를 던지며 투수로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대은 역시 성장이 필요했다. 은퇴선수들이 아마추어와 승부를 겨루면서 7할의 승률을 유지하며 스포츠 영웅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데 비해 이승엽과 이대은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승엽은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팀을 이끌어 프로그램이 목표하던 7할 승률을 달성하며 성장에 성공했고, 자신의 실력에 스스로 당황하고 놀랐던 이대은은 점차 제구 실력이 안정되면서 시즌 2에서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며 성장했다. 일본 리그와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던 이대은의 성장은 증명과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노리는 성장의 서사를 함께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선수들 역시 <최강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야구선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포수 박재욱과 외야수 김문호, 투수 신재영이 그러하다. 프로 리그에서 야구선수로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지 못하거나 전성기가 매우 짧았던 선수들이지만 <최강야구>에 출연하며 최강몬스터즈의 중요한 선수로 거듭났다. 포수 박재욱은 출연과 동시에 주전 포수가 되며 중요한 선수로 인정 받았고 신재영

역시 은퇴한 이후임에도 던질 수 있는 구종을 늘리며 투수로서의 역량을 키운다(48화, 2023.07.10, 106화, 2024.11.11). 김문호는 시즌 2에서 눈에 띈 성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대호를 제치고 타율왕이 되었고, 코믹한 설정이지만 아낌 없이 주는 상(기량발전상)을 받기도 했다. 물론 <최강야구>의 경기는 KBO 프로 리그의 경기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치열함은 아니며, <최강야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프로 선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활약은 프로그램 안에서 연습을 통해 야구선수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프로 때 성취할 수 없었던 성과를 거두어 성장하는 모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들의 성장에는 이승엽 다음으로 감독으로 출연하고 있는 김성근의 역할이 매우 크다. <최강야구>에서 실제 연령으로서 노년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감독인 김성근과 코치 이광길이다. 1942년생인 김성근과 1960년생인 이광길은 2024년 현재 각각 82세, 64세로 실제 노년의 연령이다. 노인 혐오의 시대에 노인은 생산력이 떨어져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상실되었고 미디어는 그들의 건강과 능력에 대한 염려와 가난, 고독, 결핍과 같은 부정적인 소재와 노인을 연결해 왔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는 더욱 심화되어갔다.<sup>23</sup> 이러한 시대에 <최강야구>는 노년을 맞이한 감독을 따르며 성장하는 은퇴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노년의 성장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노년의 역량과 열정을 함께 보여준다.

이때 최강몬스터즈에서 가장 큰 성장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은 선성권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집안 형편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했던 선성권은 시

<sup>23</sup> 강미영, 「노인혐오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과 대응」, 『횡단인문학』 12,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2022, 34~35쪽 참조.



〈그림 4〉〈최강야구〉 1화, 박용택 선수와 덕수고 야구부 선수의 대화

즌2 드래프트에서 발탁되었다. 한 번도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우지 못했던 그는 최강몬스터즈에 육성 선수로 영입되었다. 현재 독립리그의 선수가 된 선성권은 최강야구에서 주요한 선수로 여전히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선성권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직관 경기에서 투수로서 처음 등장했을 때 뜨거운 응원을 보냈던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54화, 2023.08.21). 관중은 선성권이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며 응원했고, 독립리그 선수가 되며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JTBC 유튜브 채널에서 김성근이 선성권을 가르치는 영상을 시리즈로 업로드했던 것처럼<sup>24</sup> 시청자들이 김성근의 교육과 함께 몬스터즈로서의 경험을 통해 야구선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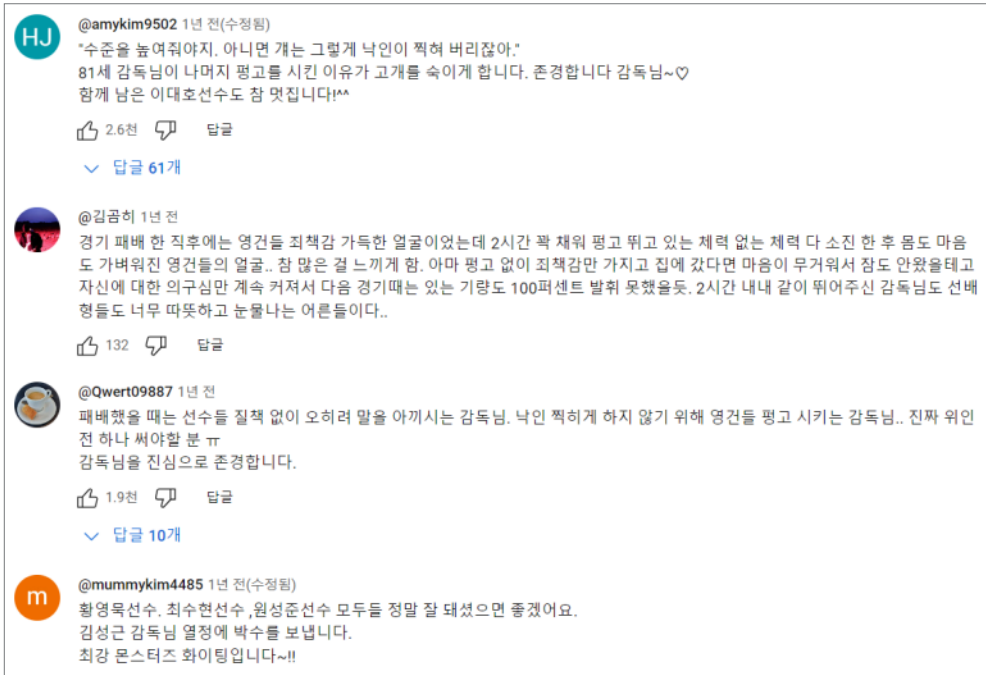
대등하게 경쟁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최강몬스터즈와의 경기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 〈최강야구〉 1화에서 덕수고 선수는 1루로 진루하여 1루 내야수인 박용택에게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야구선수로서 큰 성취를 이루어낸 박용택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박용택은 연습을 많이 하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짧은 대화이지만 청춘과 노년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최강야구〉에서 1/2/3루로 진출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내야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에게 인사하거나 출연 선수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장면은 자주 연출된다. 스포츠를 통해 실제로는 만나기 어려운 선수를 만날 기회를 얻고 또 그 과정에서 청춘은 성장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편 감독이 직접 자신의 선수를 교육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김성근이 감독이 되면서 특히 시즌2에서 자주 등장했던 장면인데, 상대편 감독이 야구 경기를 앞두고 팀에서 뛰어난 선수의 성장을 위해 부탁하는 것이다. 보통의 야구 경기 준비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장면은, 한국 야구계에서 ‘야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감독이었던 김성근이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김성근은 상대 감독에게 부탁받은 학생의 타격/투구 자세를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교육한다. 흔치 않은 기회를 얻게 된 학생의 진지한 모습과 학생의 성장을 위해 부탁하는 감독, 여든을 넘기고도 어린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노(老) 감독의 관계는 서로를 대결 상대로만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마추어 야구팀은 최강몬스터즈와 야구팀 대 야구팀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승부를 겨루며 아마추어 야구팀과 겨룰 때와 다른 체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 중 감독이 선수들에게 최강몬스터즈의 경기 운영 방식을 보며 ‘콜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조언하는 장면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을 겁니다’라는 해설위원의 설명은, 〈최강야구〉가 청춘의 아마추어 선수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24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과♥ 설날에도 무럭무럭 육성권 1편, JTBC Entertainment, 2024.02. 28; 「최강야구」 서른 번의 ‘성권이 계단’ 등반기 설날에도 무럭무럭 육성권 2편, JTBC Entertainment, 2024.03.07; 「최강야구」 오늘도 성권이는 무럭무럭 육성 중! 설날에도 무럭무럭 육성권 3편, JTBC Entertainment, 2024.03.28.



〈그림 5〉 실수 후 평고하는 영건들의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sup>25</sup>

의 모습은 〈그림 5〉의 댓글처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다. 청년부터 장년, 노년 이 야구를 통해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동은 세대 간의 소통이 사라지는 시대이기에 더 크게 느껴지게 한다. 청년 세대의 실수에 대해 혼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

여준다. 청춘과 노년의 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기 위한 승부가 아니다. 노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고 자신을 재영웅화하는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청춘과 소통하며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을 보는 시청자들 또한 그러한 의미를 공유한다. 〈최강야구〉의 내용은 짧게 정리되어 JTBC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데, 청년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한 방송 클럽에서 존경할 만한 노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가 드러난다.

〈최강야구〉 41화(2023.05.22)에서는 경기가 중 큰 실수를 한 뒤 자책하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인 황영목을 비롯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고된 훈련을 받는다. 감독 김성근과 코치 이광길은 2시간 동안 공을 배트로 쳐 받고 1루로 패스하는 평고(수비 연습용 타구)를 직접 진행한다. 고된 훈련을 받는 아마추어 선수와 그것을 진행하는 노년의 감독과 코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주기 위해 자신해서 경기장에 나와 준 선배 선수들

는 청춘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꿈꾸는 세대 간의 소통이 실현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구선수로서의 전성기가 끝난 선수들과 야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선수들의 만남은 야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춘은 스포츠 영웅과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포츠 영웅은 청춘에게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강야구〉에서 노년과 청춘의 대결은 대결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17화에서 U-18 청소년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선수 부족으로 이승엽이 타선에 나갈 준비를 하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앞 선수를 고의사구로 먼저 보내고 투수에게 이승엽과 대결하도록 한다. 직판 경기였던 이 경기에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국민타자라 불렸던 전설적인 선수와 대결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승리의 경험보다 대결의 경험이 가진 더 큰 가치를 보여주는 낭만적인 장면이다. 청춘의 경험과 성장을 위해 실패하기 위해 타석에 나서는 선수의 모습은, 스포츠를 통해 청춘과 노년이 교차하며 승부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5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이 배트 잡고 1루수가 이대호인 최강야구 평고의 시간, JTBC Entertainment, 2023.05.23. [https://www.youtube.com/watch?v=OGTOxml\\_8Q4](https://www.youtube.com/watch?v=OGTOxml_8Q4)

#### 4. 결론: 사라진 노병은 어디로 갔을까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이 종료되고 마음과 달리 더 이상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되지 않는 순간 노년을 맞이한다. 야구선수로서의 노년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이르게 다가온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지만, 그렇게 사라진 노병은 새로운 이름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유행처럼 말하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영광이 노년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은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운동선수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은퇴 이후 불가능에 가깝다.

〈최강야구〉는 그렇게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은퇴선수들을 다시 야구장에 불러모았다. 7할 승률이라는 조건이 걸린 부활을 해낸 셈이다. 죽지 않고 사라진 노병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는 자신이 싸워던 전쟁터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최강야구〉에서 다시 돌아온 야구 선수는 사라진 노병의 욕망을 실현해 낸다. 방송 종료라는 죽음을 전제로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최강야구〉의 선수는 그래서 청/장년의 몸이어야 한다. 진짜 노년의 선수가 수행하는 치열한 승부는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은퇴한 운동선수는 젊은 나이에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 후 삶이라는 노년에 겪을 체험을 먼저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성기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몸이 된다.

아빠가 골프선수가 아니라 야구선수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출연을 결정했다는 정의윤의 말은, 은퇴 이전의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년의 욕망과 일치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승리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통스럽더라도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새롭고 적극

적인 노년”<sup>26</sup>을 살아가고자 하는 현재의 노인들의 욕망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이 과거의 회상을 통해 젊음, 활동성과 같은 긍정적 정체성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듯,<sup>27</sup> 최강야구의 출연 선수들은 과거를 재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하고자 한다. 그렇게 〈최강야구〉가 진행될수록 은퇴선수는 과거를 증명하고 재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한다. 그들은 자신의 서사를 운동선수의 서사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 서사의 종결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운동선수로서의 서사로 종결하기 위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sup>28</sup>

이때 아마추어 선수들인 청춘들과의 대결과 소통은 야구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그들의 노력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한다. 출연자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체험을 다음 세대의 성장에 필요한 계기가 되고자 한다. 이승엽을 비롯한 장년의 선수는 동등한 선수로서 청춘과 대결하고 팀으로서 청춘과 함께하며 성장의 동력이 되고자 한다면, 김성근은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며 청춘과 장년층인 선수들까지 모두의 성장을 돕는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 역시도 많은 승패를 경험하며 깨닫고 성장한다.

노년의 삶에도 여전히 성장을 추구하고 소통을 원하며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강야구〉의 즐거움과 감동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스포츠 영웅에게서 은퇴 후 노화의 결함을 찾지 않고 그들이 왜 스포츠 영웅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은퇴하고 노화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영웅일 수 있도록 만든다. 그 과정의 노력은 우스꽝스럽거나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청춘들의 노력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며 자신의 노화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청년세

26 김지혜·조성남, 앞의 논문, 286쪽.

27 위의 논문, 292쪽.

28 이재환, 「서사적 정체성과 노년 혹은 나이들」, 『인간·환경·미래』 30,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3, 59~60쪽.

대와 건강하게 소통하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장을 돕지만, 그렇다고 패배를 염두하고 싸우지 않는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키가 작은 타자인 정근우와 가장 구속이 느린 투수인 유희관은 MVP를 받았으며, 구단에서 좋지 않게 그만두었던 이대은은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투수로 성장했다. 프로에 데뷔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박재욱 역시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었다. 은퇴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성취가 있다는 것을 <최강야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JTBC, <최강야구>, 2022.06.06~2024.11.18.

### 2. 단행본 및 논문

강미영, 「노인혐오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과 대응」, 『횡단인문학』 12,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2022.

김은진, 「미디어 속 여성 스포츠의 서사와 재현」, 『여성학연구』 32(1), 부산대여성학연구소, 2022.

김지혜·조성남,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2, 이화여대, 2004.

구창모, 「현대사회와 스포츠 영웅: 스포츠 영웅의 사회학적 관점」, 『한국스포츠사회학지』 9,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998.

박소영, 「TV오락프로그램의 스포츠스타 '미디어 광대' 되기」,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5.

서진교,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동규, 『예능의 비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이재문·이용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성공 요인 분석 연구: 최강야구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5(2), 한국스포츠과학원, 2024.

이재환, 「서사적 정체성과 노년 혹은 나이듦」, 『인간·환경·미래』 30,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3.

이준호·이영주, 「스포츠스타의 스포츠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프로그램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제작진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2(1), 한국소통학회, 2003.

정준영,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 2020.

조미술, 「실제 스포츠 경기를 도입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 연구」, 『문화영토연구』 5(1),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 2024.

최명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최강야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22(1), 한국스포츠학회, 2024.

최윤소,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스포츠예능 인기의 명과암」, 『스포츠과학』 165, 한국스포츠과학원, 2023.

### 3. 기타 자료

최강야구. JTBC Entertainment, [https://www.youtube.com/watch?v=HL\\_hNwcEuQE](https://www.youtube.com/watch?v=HL_hNwcEuQE).

---

**Abstract****The Meaning of Old Age as Portrayed in the Sports Variety Show the <Strongest Baseball>**

Bak, So-Young |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sports variety show <Strongest Baseball> explores the meaning of old age through the journey of retired baseball players who relieve their lives as athletes. Beyond mere entertainment, the program highlights the aspirations and efforts of these former sports heroes to maintain their identities even after retirement. It serves as a lens to examine the desires of older generations in modern society and redefines their roles and values. Retired players, while technically belonging to the young or middle-aged demographic, have experienced physical aging as athletes and have undergone early retirement. This unique position allows them to embody and fulfill the aspirations associated with old age. They engage in serious competition with younger, physically superior, yet inexperienced amateur players, using the sport of baseball as a medium for meaningfu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Their efforts as a team to achieve the goal of a 70% win rate illustrate what is essential for life after retirement, offering insights into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ose in their later years. At the same time, their competition with amateur players highlights their role in fostering the growth of these young athletes, reaffirming their social value and contribution.

**Keywords** <Strongest Baseball>, Sports, Old Age, Retirement, Elderly Identity, Retired Athletes, Sports Variety Show

---